금속노조통신 2026-17호

발행일 2026년 6월 25일(목) | **발행인** 박상만 | **SNS**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 ⌕금속노조 | **편집** 선전홍보실 ☎ (02)2670-9507

금속노조, 7·15 총파업 향한 현장순회 돌입

금속노조가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본격적인 현장 조직화에 시동을 걸었다.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첫 행선지로 충남지부를 찾아 세정지회, 유성기업아산지회, 한온시스템아산지회, 케이엠피지회를 직접 돌며 조합원들을 만나고,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.

박상만 위원장은 “자본은 트럼프 관세 등 대외 여건과 AI 투자를 핑계 대며 무차별적인 해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, 이 과정에서 국내 본토의 일자리 변동 위험은 철저히 가려져 있다”며, “정부가 자본의 편만 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정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
특히 정규직의 울타리를 넘어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, 자회사,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원청교섭 투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.

박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임원들은 이번 충남 지역 순회를 시작으로 두 조로 나누어 전국 각지의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. 위원장을 필두로 한 조는 6월 25일 인천, 30일 경기, 7월 2일 대전충북, 3일 충남, 6일 울산, 8일 전북, 9~10일 광주전남지부의 현장을, 수석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조는 6월 25일 포항, 30일~7월 1일 경남, 2일 부산양산, 3일 울산, 6일 서울, 8일 경주, 9일 대구, 10일 구미지부의 현장을 방문한다.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, 오는 7월 15일 원청교섭·초기업교섭 쟁취,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의 강력한 총파업 전선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결의다.